

<서평>

*They were All Together in One Place?*

*Toward Minority Biblical Criticism*

Randall Bailey, Benny Liew, and Fernando Segovia, ed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9, 397p.

최진영\*

이 책의 편저자들인 랜덜 베일리(Randall C. Bailey), 베니 류(Tat-siong Benny Liew), 페르난도 세고비아(Fernando F. Segovia)는 이 공동 연구서의 목적을 “성서학 분야의 변화를 위해 연대와 협력을 이루어내면서 피부색으로 나누어진 경계선(color line)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밝힌다(5p.) 성서학에서 왜 피부색이 중요한 문제인가? 지배적인 서구 문화와 서구 중심의 성서학에서는 유색인종 학자들의 성서 해석을 소수자의 견해로 주변화해 왔다. “마이노리티”의 개념은 수적인 소수자나 무언가를 결핍한 사람들을 지칭한다기보다, 인종화(racialization), 종족화(ethnicization)와 같은 과정을 통해 소수자로서 강요되어온 과정(minoritization)을 전제하는 것이다.<sup>1)</sup> 나아가 소수 유색인종 성서학자들은 백인과 유색인 사이의 경계는 물론 인종-종족적 소수 그룹 간 경계를

---

\* 밴더빌트대학교 Ph. D., Cand., 신약학

1) 영어의 “minority”는 “소수” 또는 “소수자”로 번역되지만, “minority criticism”을 우리말로 옮길 때는 “minoritized”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소수자가 하는 비평’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영어의 표현을 그대로 살려 “마이노리티 비평”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비판적으로 바라본다.<sup>2)</sup> 즉, 서구 학자들과 인종적 소수에 속하는 학자들 사이의 힘의 차이와 인종적·종족적 소수자 그룹들 사이의 힘의 역학을 동시에 인식하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이중 대상을 염두에 두고,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라틴계 미국인 성서 학자들의 범종족적인(panethnic) 소수자 공동체를 구성하는 연대의 전략을 도모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각각의 인종 그룹 안에서의 성서 해석 작업은 이루어져 왔지만, 이 편저에서처럼 세 인종 그룹의 성서학자들이 힘을 합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성서학 역사상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후속 작업으로서, 미국 아틀란타에서 열리는 2010년 연례 성서학회(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에서는 “Minoritized Criticism and Biblical Interpretation”이란 제목으로 두 세션이 개설된다. 성서학 전체에서 볼 때 매우 미약한 움직임일 수 있지만, 이 책의 저자들과 학회의 발표자들이 가지는 각 인종적 그룹들 안에서 위치는 물론, 이들이 함께 새로운 목소리를 낸다는 것만으로도 유럽계 미국인들의 성서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성서 학계에 도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특별히 구약 연구와 신약 연구의 동일한 배분, 남녀 학자의 평등한 비율, 세 인종적 그룹의 공평한 참여를 원칙으로 추구하고 구성되었다. 마이노리티 성서 비평은 서구 주류 성서학의 힘에 대해 비판하지만, 인종적 소수자들인 그들 자신도 다른 이들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날카롭게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동등한 참여의 원칙이 가져오는 실제적 효과는 성서 해석의 주제와 접근 방식의 다양성이다. 그러나 편집인들의 서론과 세고비아가 종합, 정리한 탁월한 결론은 이

---

2) 피부색의 경계를 의미하는 “컬러 라인”에 대한 은유는 두보이스(W. E. B. Du Bois)로부터 온 것이다. 두보이스에게 이 경계선을 극복하는 것은 미국인이거나 아프리카인 그 어느 한 쪽의 정체성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인이면서 동시에 미국인인 “이중 자아”나 “이중 의식”(double consciousness)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의 견해로, 편저들은 두보이스의 이러한 “이중 비전”을 또 다른 방향으로 확대하고 있는 듯하다

러한 다양한 성서 해석들을 마이노리티 성서 비평의 이름 아래 담론화하고 이론화하면서 하나로 아우르는 역할을 한다.

이 책의 내용은 서론에서 제시된 네 가지 비평 전략들에 따라 구성된다. 첫 번째 전략은 서구 성서학이 주장해온 해석에서의 객관성과 보편성의 허구를 드러내는 해석의 상황화(contextualization)이다. 저자들은 평등과 자유를 기치로 하는 미국 사회 속에서 인종과 종족, 성(gender), 성적 정향(sexuality), 계층, 문화가 어떻게 시민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역할을 감당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억압의 현실을 강화하는 데 복합적으로 이용되어져 왔는지를 유념한다.<sup>3)</sup> 그들은 특별히 포로와 이산, 인종과 종족, 성과 성적 정향의 주제가 지배적이거나 그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서구 중심의 시각으로 해석되어 온 본문들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 즉, 본문의 상황과 해석자의 상황을 병치시켜 소수자 공동체들의 경험과 현실을 성서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하는 또 하나의 본문으로 삼는 것이다. 이러한 본문 선택과 더불어 저자들은 객관성과 규범성을 주장하는 지배적인 해석에 도전한다.

셸리 앤더슨(Cheryl B. Anderson)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인종 차별 정책 아래 백인들과 격리되어 살아야 했던 역사적 체험에 근거해서 에스라의 잡훈 금지령에 대한 본문을 해석한다. 프란시스코 가르시아 트레토(Francisco O. Garcia-Treto)의 이중 언어 사용과 망명 경험은 다니엘과 애가서에서 나타난 동일한 주제들을 발견하게 한다. 그에게 쿠바 문학은 성서와 현재의 역사적 경험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장 피에르 루이즈(Jean-Pierre Ruiz)는 그의 삶의 자리인 뉴욕의 부록클린에서 느헤미야 13장의 이야기를 읽으며, 언어와 종족 정체성, 식민의 경험이 교차하는 지점들을 발견한다. 프랭크 야마다(Frank M. Yamada)는 일본

3) 미국의 인종 차별적 시각에서 인종과 성적인 관념들이 결합된 전형적인 예는 이것이다. 아프리카계나 라틴계 미국 남성들은 통상적으로 남성성이 과도하여 성적으로 통제가 어렵고 따라서 위험한 존재들로서 여겨지는 한편, 아시아계 남성들은 지나치게 여성적이고 복종적인 특징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 후손들의 미국에서의 억류 경험을 통해 창세기 2-3장의 이야기를 포로기 관점에서 읽는 한편, 게일 이(Gale A. Yee)는 구약의 룯과 아시아 계 미국인들에게서 찾아낼 수 있는 공통점, 즉 영원한 국외자인 동시에 귀감이 되는 소수자(model minority)로서의 모습을 강조한다. 이재원(Jae Won Lee)은 로마서의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바울의 언급이 1세기 로마 사회의 변두리에 존재한 그룹들 안에서의 종족에 대한 논쟁들을 반영한다고 보고, 이러한 해석은 오늘날 지배적인 성서 비평과 인종적 소수 학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성서 비평 사이의 힘의 대결에 관한 논의에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다수 저자들의 글들이 사회적 소수자의 삶의 자리를 강조하는 상황적 성서 해석의 범주에 속하는 한편, 두 번째, 세 번째 전략들을 사용하는 학자들은 각각 한 명에 불과하다. 마이노리티 성서 비평의 두 번째 전략은 초역사적-비교 문화적 접근과 담론의 강조 등을 통해 성서 연구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신약 성서 문헌 배경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로 확장하는 게이 바이런(Gay L. Byron)의 글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바이런은 특별히 사도행전 8장의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에서, 성서가 피부색이 다른 종족을 어떻게 타자화(othering)하는지 상징적 재현의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세고비아는 세 번째 전략, 즉 성서학의 현황을 파악하면서 개인적, 문화적, 전 세계적 차원에서 마이노리티 성서 비평의 이론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한다. 그는 마이노리티 비평의 특성으로 공동체 지향성, 학계에서의 비주류화, 비평에서 소수자들이 다루는 연구 사안을 강조하면서, 비평의 주체로서 ‘라티노/라티나 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담론화하고자 한다.

이 책의 마지막 비평 전략은 인종 및 종족 연구(racial and ethnic studies), 탈식민 이론, 여성학 등과의 학제 간 제휴를 통해 담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베일리는 에스더서의 주요 인물들이 인종과 종족과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 성적 특징이 부여되는지를 밝히면서, 이러한 질문

들은 성서 해석자들의 인종 및 종족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류도 인종과 성, 성적 정향성은 복합적으로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여성적 지혜와 남성적 로고스의 관계를 다룬다. 디미트리우스 윌리엄스(Demetrius K. Williams)는 사도행전 2장의 요엘서 인용이 인종, 계층, 성에 대해 함축하는 것을 연구하면서, 그것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평등에 대한 관념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 성찰한다.

이 책의 2부는 성서학 외 다른 분야의 세 저자들이 쓴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마이라 리베라(Mayra R. Rivera)는 신학(constructive theology)의 관점에서, 에블린 파커(Evelyn L. Parker)는 신학 교육의 차원에서, 제임스 경진 리(James Kyung Jin Lee)는 윤리학 측면에서 마이노리티 성서 비평을 조망하며 평가한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포용과 개방성은 성서학 분야를 넘어선 더 넓은 범위의 연대를 도모하고 마이노리티 성서 비평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책은 주제와 연구 대상, 방법과 범위,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서 기존의 성서학에 도전하는 진취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미국 성서학계의 맥락, 즉 인종적 주류-비주류 구도를 염두에 두고 집필했지만, 한국 독자들에게 주는 몇 가지 유익과 한계들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이 책의 대다수 저자들이 사용하는 상황적 해석은, 리베라가 지적하듯이, “현실에서 유리된 보편성의 언어에 의해 항상 빛을 잃은 채 더 낮은 영역의 진리로 격하되어 왔다.”(316p.) 혹자가 한국, 아시아 성서 해석학을 성서 연구에 도입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를 가르쳐 온 서구의 스승들은 그러한 해석에는 주관성과 편견이 개입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할지 모른다. 정작 자신들은 특정 해석의 이론과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수자 학자들이 그들의 인종적 정체성을 해석의 렌즈로 삼는다고 하면 그것을 열등한 해석으로 간주하는 것이 서구 중심 성서 해석의 지배적인 경향인 것이다. 마이노리티 성서 비평은 백인 서구 학자들의 해석도 일종의 상황적인-예컨대,

계몽주의나 과학주의의 세례를 받은-해석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학제를 넘나드는 다양한 비판 이론들의 수용을 통해 변혁을 가져오는 담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는가이다. 달리 말하자면, 무엇을 위해 성서 해석을 하는가이다. 대부분 저자들의 글들에서 알 수 있듯, 인종적 소수 학자들은 자신의 해석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임을 주장하기 위해 성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공동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성서 읽기를 시도한다. 물론 저자들의 상황적 해석은 대부분 사회-정치적 억압을 파헤치는 이데올로기 비평에 치중해 있다. 저자들이 다루지 않는 현실이 있다면 그것은 식민-탈 식민의 정황 가운데서의 소수자 공동체들의 사회-정치적, 문화적 경험들과 분리될 수 없는 종교적 체험일 것이다. 한국과 아시아의 독자들에게, 초월적 관점을 배제한 이데올로기적 성서 해석은 진정 공동체를 지향하는 성서 해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도록 만들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책은 성서 해석자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삶의 자리와 필요를 의식하면서 성서를 읽을 때 사회 안의 이방인들, 나아가 전 지구상의 타자들을 돌아보도록 이끈다. 이미 한국 사회도 다문화 사회로 변화해 가면서 많은 소수자들의 존재들을 끌어안으며, 그들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들을 풀어가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성적 정향성과 성 전환에 대한 이슈들도 장차 교회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들이 되어 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성서학은 성서 해석을 통해 한국 교회와 사회가 인종 문제, 그와 연관된 계층, 문화, 언어, 성 역할, 성 정체성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의 편저자들은 소수자들의 연대를 추구하면서, 주류 성서학에 대해서는 전략적 배타주의를 표방한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 마이노리티 성서 비평은 소수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 가운데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다수소수의 입지들은 전 세계 구도에서 재조명해야 한다. 2010년 6월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성서학회에서 이 책을 논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거기서 대다수 아시아의 토착 성서학자들은 누가 과연 ‘소수자’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책이 기획한 소수 학자들의 연대에 있어 빠진 주체가 있다면, 편집자들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미국 내 토착 인디언 학자들과 비서구 세계의 토착 학자들일 것이다.<sup>4)</sup> 미국의 마이노리티 성서 비평의 프로젝트가 진정 세계화를 지향(the “global turn”)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소수자 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라는 ‘세계 중심의 주변부에 위치한 소수자’라는 이 책의 비평가들의 입지는 세계의 변방, 특히 제3세계의 토착 성서학자들과 비교할 때 주변부가 아닌 중심부에 속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렇듯 ‘소수자’의 위치는 유동적이다. 따라서 고정된 인종적-공동체적 경계를 넘어 다른 소수자 공동체들과의 연대 의식, 타인들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 책을 읽을 때, 독자들은 미국 성서학계의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한국 사회의 특수 상황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듣게 될지 모른다. 이를 통해 성서학이 제공하는 새로운 실천적 방향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이 책이 주는 가장 큰 유익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 접수일 2010년 7월 31일, 수정일 2010년 8월 28일, 게재 확정일 2010년 8월 28일

---

4) 또 이 책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동아시아계로 제한되어 있어 그들이 아시아계 미국인 학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가도 지적해야 한다.

